

출장보고서

1. 출장 개요

- 목적: 1) 주홍콩 한국영사관 주최 세미나 참석, 2) 중국 연구참여자와의 간담회
- 출장자: 강동수 선임연구위원
- 기간: 2011년 9월 27일~30일 (4일간)
 - 출장 일정
 - * 9월 27일(화) 20:00 서울 출발, 22:30 홍콩 도착
 - * 9월 28일(수) 09:30-15:00 세미나 참석 및 주제발표
 - * 18:00~21:00 한인 금융기관 인사 간담회
 - * 9월 29일(목) 11:00-21:00 BIS 홍콩사무소 방문 및 만찬 (HKMA와의 미팅은 태풍으로 인하여 취소)
 - * 9월 30일(금) 00:45 홍콩 출발, 05:20 서울 도착

2. 출장 활동 내역

- 주홍콩 한국영사관 주최 세미나
 - 참석자
 - * 주최자: (주홍콩 한국영사관: 전옥현 총영사, 김정운 재경관, 최준호 영사 등), 중국은행
 - * 발표자: Joseph Yam (전 HKMA 총재, 현 중국인민은행 고문), 강동수 (KDI), My Huaipeng (HKMA고문, 전 중국인민은행 금융시장국장), Ye Yunping (중국은행(홍콩) 전략기획부장)
 - * 참석자: 홍콩 주재 금융인 약 100명
 - 발표내용
 - 주제발표: Expectations and Concerns on Internationalization of RMB:

The Perspective of Korea (자료는 별첨)

- * 중국정부가 인민폐를 국제화하려는 배경 및 목적과 이러한 시도에 긍정적인 국제환경을 설명
- * 인민폐 국제화에 따른 중국측의 비용, 예를 들면 수출 측면의 결제통화 증대에 따른 외환보유고 증가와 내외 금리차에 의한 금리비용 (2011년 상반기 중 약 33억달러에 달함)을 부담하게 됨.
- * 현재의 인민폐 국제화는 인민폐의 평가절상 기대에 기인하는데, 만약 평가절하의 상황에서도 국제화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음.
- * 인민폐 국제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변동환율제의 시행, 자본시장 자유화 등이 선결되어야 하는데, 이는 중국 경제 및 금융시스템의 내적 문제로 인하여 아직은 시기상조임.
- * 인민폐가 무역결제통화와 투자통화를 넘어서 준비통화(reserve currency)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문제 이외에도 정치적인 해결책도 모색해야 함.
- *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지역수준의 인민폐 국제화를 먼저 시도하고 이를 성공한 이후에 완전한 국제화를 추진할 필요
- * 한국의 입장에서 인민폐 국제화는 수출증대, 환위험 축소, 거래비용 축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, 무역결제 후 입수한 인민폐를 운용할 수단이 많지 않다는 점과 향후 인민폐 국제화로 인하여 한국자산시장이 변화할 수 있다는 위험성도 있음. 중국 자산에 대한 매력이 증가하면서 국제적인 기관투자자의 portfolio rebalancing이 한국에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음.
- * 무엇보다도 국제경제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가 인민폐 국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정책기조를 흔들림 없이 가져갈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도 있는 것이 사실.
- * 이러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인민폐 국제화의 장기적인 전망은 밝음. 결제통화와 투자통화로서의 매력은 충분

□ BIS 홍콩사무소

○ 면담자

* Eli Remolona, Chief Representative

* Andrew Filardo, Head of Economics for Asia and the Pacific

* 심일혁, Senior Economist

※ HKMA(Wenlang Zhang, Kevin Chow)와의 회의는 태풍으로 인하여 취소. 홍콩에서는 8호 이상의 태풍이 불면 사무실 출근을 안 한다고 함. BIS에서도 Frand Packer (Head of Financial Stability and Markets for Asia and the Pacific)와 Gounan Ma (Senior Economist)와의 면담이 취소되었음.

○ 면담내용

- BIS 홍콩사무소의 주요 업무

- * 약 35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는데, 이중 연구인력은 10명 수준임. 나머지는 은행업무(자산운용 포함)와 행정인력임.
- * BIS 홍콩사무소는 연구의 hub이라기 보다 회의를 지역 중앙은행협의체가 주관하는 업무와 이를 보좌하는 업무에 치중하고 있음. 연간 14회 정도의 회의를 개최함.
- * staff는 회의의 진행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기획과 함께 사전에 발언록을 징구하여 정리하고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후선업무를 수행함.
- * 이외에 중앙은행으로부터 위탁받은 외환보유고를 투자하는 직원이 있음. BIS의 총 운영자산은 약 7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.

- BIS 홍콩사무소의 연구주제

- * 아래의 두 가지 주제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.
 - ①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 확대(자산 증가)에 따른 민간 금융기관의 행태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
 - ② 아시아·태평양 지역의 부동산시장에서의 규제와 전망
- * 동 연구는 통상 약 2년의 기간 동안 실시하는데, ①번 주제에 대한 연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있고, ②번 주제는 현재 연구진을 구성하고 있는 단계임.
- * ①번 주제에 대한 PM은 Dr. Filardo임. Dr. Filardo는 10월 말 동 주제로 태국에서 중앙은행 고위관계자를 초청하여 High Level Seminar

를 개최하려고 함. 이때 KDI의 연구자도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길 기대함. 정식으로 초청장을 발송하겠음.

- * ②번 연구는 심일혁 박사가 주관하고 있음. 현재 4개 연구 논문에 대한 집필진이 결정된 상황이고, 1~2개 연구주제를 추가하려고 하고 있음. 이때 KDI의 연구진이 참여할 것을 고려해 주기 바람.

- BIS와 KDI간의 업무 협조

- * 기술적인 문제는 전혀 없지만, BIS의 업무 load를 감안할 때 KDI의 과제에 직접 참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. 오히려 BIS 과제에 KDI가 연구자로서 참여해주기를 기대함.
- * BIS는 장기 secondment program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. 공동연구의 발주시에 단기(1주일 내외)의 출장성 secondment가 있음. 이때에도 BIS가 발주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BIS 사무실을 사용하는 개념임.
- * BIS 직원이 외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강한 규제가 있음. 전적으로 line managers의 승인이 있어야 하고 승인이 있는 경우에도 결과물에 대하여 BIS의 승인을 받아야 함.
- * BIS 과제에 외부연구자가 참여할 때에도 BIS 내부의 엄격한 심사절차를 밟아야 함. 과제가 완료된 이후에는 연구자의 요청에 따라 논문의 발간은 가능함.